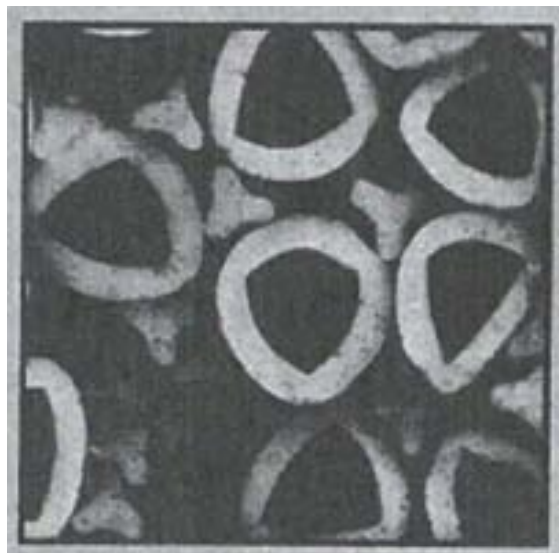


## 우모 대체용 침구 안감 개발

도레이와 도레이 인터내셔널은 보온성이 우수한 침구 안감용 폴리에스터 중공섬유 ‘ft-Dreamthermo’를 공동으로 개발하여, 이 소재를 사용한 침구제품을 제조자 개발생산(ODM,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)으로 전개하고 있다.

이 소재는 중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에 따른 우모 원료의 수입난과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제품으로 전개하고 있다.

‘ft-Dreamthermo’는 섬도와 함께 Y형이나 중공원면 등 단면형태가 다른 복수의 안감소재를 혼합한 것이다. 섬유간에 미세하고 복잡한 공간이 형성되어 정체된 공기층(dead air)을 효율적으로 유지하여 우수한 보온성을 발휘한다. 이 소재는 우모와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가지며, 경량성 및 벌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성, 회복성이 우수하다. 세탁이 가능하며, 세탁 후에도 촉감이 유지된다. 현재 이 소재는 대형 침구메이커나 침장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.



‘ft-Dreamthermo’ 원면 확대 사진

추가적으로 도레이에서는 아웃도어 침낭용으로 세섬도 폴리에스터 안감 ‘ft-micro’, 1 dtex 수준의 세섬도와 7 dtex 수준의 태섬도로 중공이 다른 폴리에스터 원면을 혼합한 ‘ft-Dual’도 새롭게 개발하였다.

도레이 그룹은 폴리에스터 안감의 라인업을 확충하여 침구관련 제품의 매출을 2013년 14억엔, 2016년 22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♣ 섬유뉴스(2013. 6. 12)